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원장

김영화



“환경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

대담_류재천 본지 편집위원 ryujc@kist.re.kr

얼마전 우리 나라 환경기술 연구를 총괄하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김영화 원장이 취임했다. 다음은 김 신임원장 취임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 우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국가 환경기술 R&D사업의 기획, 연구관리, 성과확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유망 환경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선진 환경기술을 선도하는 21세기 국가환경기술 진흥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환경신기술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과제를 관리하며 환경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원장, 3본부(전략기획본부, 사업관리본부, 사업진흥본부), 1단(경영관리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의 43%가 박사, 기

술사로 구성된 고급 두뇌 집단입니다.

▶ **환경에 대한 평소 철학과 환경기술(ET) 및 IT, BT 등의 첨단기술과의 접목에 대한 계획은.**

21세기 전 세계적 환경정책 기조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해야 하며,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개발정책, 제품생산은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뮴, 납 등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전자제품은 유럽, 미주, 일본 등 선진국에는 한 대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개발 내지 생산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IT, BT, NT, ET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 기술분야간에 존재하는 기술의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간의 융합을 통해 중첩영역에서 등장하는 첨단기술을 미래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차세대 유망기술인 환경기술(ET)과 국가성장동력(BT, NT, IT 등)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규사업 및 과제를 발굴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융합기술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내년에 본격 계획을 실시하여 미래환경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적 긴급성으로 인해 조속히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2006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구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경험에서 보실 때 앞으로 미래의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환경기술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반기술, 환경현안문제 해결 및 환경규제 달성 등을 위한 실용화 기술, 단기적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개발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의 개발을 위한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등 모두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 분쟁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기

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분석과 환경재의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분석, 갯벌의 가치와 같은 생태적 측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초자료 부족으로 민관합동조사에서도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환경위험을 경제적 편익분석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환경재에 대한 가치평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이와 같은 기초연구 추진을 확대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기술 보급 및 홍보를 위한 대국민 이해 활동 및 역량 제고에 대한 방안과 첨단 환경기술에 대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발전계획이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 원에서는 환경기술 보급 및 홍보를 위해 환경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및 과제 초록집 등의 홍보물 발간, 환경기술인력장·단기 초청연수, 환경기술상 시상, 환경테크노마트 및 사이버 전시장 운영,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술의 개발은 산·학·연 등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개발기술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산업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동안의 홍보사업은 지자체 공무원, 산업체 근무자 등 관련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었고 일반국민에 대한 이해 및 홍보활동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을 활용할 전문가 집단에 대한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측면에서는 이전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분야를 환경기술에 접목한 환경융합기술, 국제환경규제·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미래환경시장에 대비하여 사업 종료 후 현장에 즉각 접목 가능한 중규모 통합형기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를 창조하며, 선진 R&D 조직 및 관리문화를 구축하여 21세기 환경기술개발·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은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환경분야의 일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업무형태나 진흥원의 종사자들이 조금은 권위적이라는 비평과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소수의 지적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혁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의 업무 성격상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친절한 상담과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연구수행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서비스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기획·연구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부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혁신이 바로 우리 연구원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의 인센티브, 복지,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조직의 업무혁신

을 통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환경기술의 진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기관장으로서 일선에서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과의 만남이 현실화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우리 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있다고 해서 과제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가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신청 대비 선정비율은 3:1 정도로 타부처에 비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선정평가시 선정되는 분보다 탈락되는 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선정평가에서 탈락되는 것은 그 과제가 연구할 가치가 없거나 연구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연구비 지원의 우선순위에 후순위에 위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과제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원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환경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국내·외를 망라해서 환경산업은 경제성장의 두 배 정도로 시장규모가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연 3~4%라면 환경산업은 6~7% 정도로 급성장합니다.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시장에 적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21세기 환경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있어 환경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과학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과학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연구 수행으로 좀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이 환경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 및 우리 원에서는 환경과학자 여러분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기술의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적 방안, 개발된 기술의 보급·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㉓